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과 방안: 최중증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고찰하며

신지수*·김규리**

본 연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평생교육에 연계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전생애적 전환교육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성인기 자립생활로의 전환 및 유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이에 대해 문헌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연계와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 예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에서는 문헌연구에 기초한 주관식 질문으로 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같은 주제의 객관식 질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고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로는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평생교육 연계의 필요성과 전환교육 범위에 대한 전문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주제어 : 전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

*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부

**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학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제2조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 2021년 6월 현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9,497명이며 발달장애인 중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은 61,388명으로 비율은 29.3%로 70.7%로는 취업하여 일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이 48.3%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19.4%, ‘취업’이 13.7%로 상급학교 진학 이후의 계획이나 취업하지 못할 경우의 계획을 생각하는 비율은 낮다. 정은경(2017: 32)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상당수가 가정이나 주간보호센터로 돌아간다고 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졸업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 사회와 단절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김미옥 등(2020)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도전행동으로 인해 취업도 어렵고 돌봄 서비스조차 희박한 상황이며, 졸업 이후에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24시간 보낸다. 덧붙여 이들의 경우 (임예직, 김주옥, 2022)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37.19%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규 학교 교육에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미 학업을 중단한, 혹은 정규 학교 교육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는 평생교육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환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갑작스레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규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환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생활 기술이나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인수(2000: 2)는 “전환교육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총체적인 서비스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애학생은 직업선택의 제한, 직업기술 전이의 제한, 전직이나 직종의 제한, 높은 상호의존성 등의 특성 때문에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잘 안되므로 장애 특성 및 능력, 개개 학생의 요구와 결과 중심 과정으로 고완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성인교육, 직업교육, 통합된 취업활동(취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한)과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재 전환교육에 대해서 이현주 외(2021)은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생활로 이동하기 위해서 고용에만 치중해서 다양한 성인생활 영역에 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원호(2020: 3)은 “전환교육의 초점이 주로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전환교육을 교과 수업의 영역보다는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교육하려는 교사들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전환교육을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만을 강조하기에 (홍주희, 이숙향, 2016: 14)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 초등 및 중등학령기에 걸친 연속적인 전환계획이 수립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Sitlington et al, 2010) 국내외 전환교육이 고등학교 이전 단계에서부터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연속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박광옥 외(2020: 19)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평생교육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제공기관의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와 불일치하는 등(국립특수교육원, 2018) 평생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물적 지원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알아보고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1) 서비스 이용에 소외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평생교육에 연계할 수 있도록 고찰하고자 한다.
- 2) 전환의 목적이 고용으로 한정된 전환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으로의 전환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전환교육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환과 전환교육의 정의를 성인기로의 전환에 제한하지 않고, Sitlington, Clark, & Kolstoe의 개정된 종합적 전환 모델에 따른 전생애적 범위의 전환으로 규정한다.

2) 평생교육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성인기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발달과정 전 단계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는 교육과 학습의 총체로 보았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발달장애를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김미옥 외, 2020: 2)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에 도전 행동이 동반되는 경우, 도전 행동의 심각도와 양상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미옥 외, 2018: 2019b).”라고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김주영(2020)은 2008년 기준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와 제34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령은 2016년 5월 29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해당하기에 삭제했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 교육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계속교육을 받는다는 대안이였다. 하지만 성인 장애인의 학력보완을 초점으로 장애인 야학이 활성화되어 대안의 목적과 달랐다.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2022년 기준 24개의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조례 제정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장애인 야학에서 발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으나 한계 또한 존재한다. 학령기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으로 설립되었지만 30명 내외 제한된 인원과 5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타 다른 장애인 기관과 비교하여 큰 특색을 보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제시되고 있다.

2.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

전환은 인간의 삶에서 특정 조건으로부터 다른 조건으로 변화하는, 생애주기의 단계 이동과 함께하는 변화이다(이정은, 2008; 정혜영, 2005). 인간은 자신의 삶 안에서 여러 번의 다양한 전환을 겪는데, 이 중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다른 전환의 시기에 비해 강조된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직업선택과 직업기술 전이, 전직이나 직종의 제한 등이 있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커(국립특수교육원, 1997) 성인기 전환에 있어 더 많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수직적 전환 역시 물리적,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전환교육적 지원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공적인 전환 및 적응을 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나와 있는 바다(유영신, 이영선, 2018; 이경원 외, 2011; 나수현, 박승희, 2009). 김동일 외(2020)에 따르면 발달장애학생의 직업기술을 포괄한 생활기술 습득을 돕기 위한 생활중심 전환교육의 경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공과 이상의 순서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생애적으로 종적인 연결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Brolin(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박지현 외(2021)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교 간 전환, 전학으로 인한 환경의 전환 등 수평적 전환에 대한 지원 역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현주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교육 및 서비스의 열악함, 전환계획 체제의 미구축 및 적은 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 전환교육의 연계 부족 등도 지적됐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김미옥 외, 2020)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제도권 내 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받고 주 양육자가 24시간 내내 돌봐야하는 구조이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예산 부족으로 2020년 기준으로 4,000명의 발달장애인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1급 중증발달장애인의 비율은 60,975명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성

기존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의 평생교육은 조명받지 못한 상태이다(김영준 외, 2021). 법적으로 명시된 특수교육의 목적 중 하나인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학생 전환교육 모델 융합 재구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전 생애 주기별로 보장받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모델이기에 학교 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의 성격이 나타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조사, 총 2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의 현황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 각각의 발전 방안과 연계 방안, 효과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주관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설문하였고,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조사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항을 제작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2. 문헌연구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송건과 정진자 (2021)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중점으로, 미흡한 현황에서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전환교육과의 연계를 제시한다. 우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방향 중 하나인 전환교육과의 연계성, 그리고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송건과 정진자 (2021)을 참고한 문헌연구법을 사용하였다.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KISS(<http://kiss.kstudy.com>), DBpia(<http://www.dbpia.co.kr>), SCHOLAR(<http://scholar.kyobobook.co.kr>), KCI(<http://www.kci.go.kr/kciportal/mai>

n.kci)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환교육’,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주요 검색어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KCI에 등재된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을 검색하였다. 최근 5년치 논문을 수집하고자 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2년을 더 추가했다. 이후, ‘전환교육’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들에 ‘발달장애’라는 키워드를,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들에 ‘발달장애’와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해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 의 가지 주제와 에 대한 논문들만 추려내 총 56개의 논문들을 선별하였다. 이중 연구자들이 직접 검토하여 내용 면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9건을 제외해 박사 논문 5편, 석사 논문 8편, 학술저널 21편, 학술지 11편으로 총 45개의 논문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자료 분석

선정된 논문들은 해당되는 분석기준들을 통해 2명의 연구자가 각각 비교하고 분석한 뒤 서로의 분석 결과를 대조하였다.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은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논의한 뒤, 보다 분석기준에 적절한 의견을 채택하였다.

분석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조사 분석 기준

분석영역	세부사항	하위범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설계
전환교육	인식	학교 구성원
		기타
	실태	-
	교육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모형	-
평생교육	기타	-
	인식	학교 구성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기타
	실태	-

분석영역	세부사항	하위범주
평생교육	교육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모형	-
전환교육 + 평생교육 (연계)	구조	-
	모형	-

3) 분석자 간 신뢰도

문헌 연구의 분석자 간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2명이 최종 선정된 43편의 논문을 분석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분석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 간 신뢰도는 [(일치한 수/일치한 수 + 불일치한 수) x 100]의 공식을 통해 95.34%로 산출되었다. 분석자들 간에 불일치를 보인 내용은 논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3. 전문가 조사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는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수교육과 교수 4명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종사자 2명,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1명, 전공과 경험이 있는 중등 특수교사 2명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작성 협조를 요청하였다.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특수교육과 교수 3명과 중등 특수교사 2명이 답변하였으며,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작성 협조를 요청한 전원 답변하였다. 각 전문가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기초 배경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1차 전문가 조사 대상자

	소속	직위	종사기간
1	OO고등학교	특수교사	20년
2	OOO대학교	교수	25년
3	OOO대학교	겸임교수	30년
4	OO고등학교	특수교사	10년
5	OO대학교	연구교수	15년

〈표 3〉 2차 전문가 조사 대상자

	소속	직위	종사기간
1	OO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특수교사	3년
2	OOO대학교	교수	20년
3	OO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24년
4	OOO대학교	겸임교수	30년
5	OO대학교	연구교수	10년
6	OO고등학교	특수교사	10년
7	장애인 배움터 OOOO	활동가	3년
8	OOO대학교	교수	30년
9	OO고등학교	특수교사	30년

2) 타당도

전문가 조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오수학 외, 2022)를 참고하여 Lynn이 제시한 내용타당도 지수를 활용해 특수교육과 교수 3명에게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자세한 점수별 척도는 〈표 5〉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해 3점 혹은 4점에 답한 전문가들의 비율을 I-CVI로 산출했다. I-CVI 결과는 1.0으로 타당성이 있다.

〈표 4〉 내용타당도 지수

1점	관련 없음
2점	수정을 하지 않는 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3점	관련이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함
4점	매우 관련 있음

3) 연구 절차

전문가 조사는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영역 및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 현황 등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1차 전문가 조사는 2022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9일, 2차 전문가 조사는 2022년 9월 12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진행하였다. 자세한 문항 영역 및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5〉 전문가 조사 문항 영역 및 내용

구분	문항 영역	문항 내용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국가적 차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전문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전환교육 범위	(성인기 생활과 자립 생활에)가장 효과적으로 예상되는 전환교육의 범위
	법적 차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전환교육의 법적 미비에 대한 해결방안
	연계 효과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
	연계 방안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최중증 발달 장애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 참여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가정연계	평생교육을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IV. 연구 결과

1.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현황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현황

〈표 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헌

구분	하위범주	연구 편수 및 비율	
인식	주간활동서비스	1편	(50%)
	맞춤형 서비스 설계	1편	(50%)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적어 문헌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에 대한 문헌은 2편으로 최선경(2019)은 주간활동서비스에 20% 우선순위 확대를 적용해서 별도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구성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임예직, 김주옥, 2022)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광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지원센터, 서울에서는 최중증 낮활동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지만 이용기간과 이용자 정원의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중심으로 교육하고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초졸 이하가 많다. 고용이 가능하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2) 전환교육 현황

문헌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은 학교 구성원인 특수교사, 보호자에게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그리고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돕는 교육이라고 인식된다. 이는 뒤에 전문가 조사에서 중등 특수교사 2인 모두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전환교육의 시작 범위로 ‘중등교육’을 꼽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전환교육 계획 및 ITP작성, 실행의 부분에서는 보통 수준, 혹은 부족한 수준으로 나왔다. 전환사정의 경우 그 실행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올바른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강민채, 박현주, 2017). 그 원인은 전환교육에 대한 연수와 교육의 부족으로 보이는데, 박지현 외(2021)에 따르면 교사 인식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술 영역 외의 전환교육 부분에서 중요도와 실행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환교육의 평가와 수정이 중요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실행을 위한 정확한 이해 부족, 전환교육에 대해 축소된 직업전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의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다. 이는 황순영 외(2018)의 현재 대한민국 실정으로는 전환교육의 실천이 어렵다고 답한 교사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로는 전환교육에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족 및 가정의 연계 부족, 지원체제의 미비 등이 뒤따르는 연구 결과를 잇는다.

전환교육의 범위는 대부분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교육에 관한 연구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였다. 전환교육의 영역은 직업준비 및 일상생활, 자립생활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중등교육에서 전환을 시작하려는 경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전생애적으로 전환교육이 필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 영역은 전생애적으로 봐야 할 영역이며, “미국장애아 분과협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다(황순영 외, 2018). 자립생활 영역은 일상생활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는 박철(2016)의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인식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일상생활기능이며, 이는 발달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대목과 일치한다.

한편,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 및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도 보호자 인식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수준은 점점 중도중복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환교육 및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업생활이 어려우며, 평생교육, 여가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다른

성인생활 옵션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및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이현주 외, 2021).

〈표 7〉 전환교육 현황에 대한 문헌

구분	하위범주	연구 편수 및 비율	
인식	학교 구성원	5편	(29.41%)
	기타	1편	(5.88%)
실태	-	1편	(5.88%)
교육	교육 프로그램	7편	(41.17%)
	교육과정	0편	(0.00%)
모형	-	0편	(0.00%)
기타	-	3편	(17.64%)
합계		17편	(100.00%)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문헌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학교 졸업 후 성인기로의 전환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평생교육이라는 특색과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의 여러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평생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에 대해 특수교사, 학부모,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 등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은경(2017)은 특수교사, 학부모, 발달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한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 성인들은 학령기 이후에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교육 유지와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한 발달장애인 성인에게는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현재 발달장애인 성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평생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김주영(2016) 논문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기타법령(「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세는 서울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각 자치구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한다. 김주영(2020: 3)은 “학령기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돌봄)와 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었으나, 제한된 인원(30명 내외)을 받아 5년간 종일반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와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점,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라고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을 유지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지만 평생교육의 의미와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홍성두, 김원호(2019)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6개의 영역이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생교육을 발달장애인에게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공통된 의견보다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달라 불명확하다.

〈표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문헌

구분	하위범주	연구 편수 및 비율	
인식	학교 구성원	3편	(13.04%)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4편	(17.39%)
	기타	3편	(13.04%)
실태	-	5편	(21.73%)
교육	교육 프로그램	4편	(17.39%)
	교육과정	2편	(8.69%)
모형	-	2편	(8.69%)
합계		23편	(100.00%)

4)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연구 현황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의 경우, 아직 둘의 연계 자체가 생소하여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아 이론에 방점을 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의 전환교육과 교육과정을 성인기의 평생교육과 연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 전공과를 성인기 전환의 주요한 ‘매개’요소로 보며, “지역사회 내 학교 토대화를 실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김영준, 김화수, 2021). 김영준, 김화수(2021)은 개별화평생교육계획(ILEP)을 IEP, ITP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별 맞춤형 장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표 9〉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연구에 대한 문헌

구분	연구 편수 및 비율	
구조	1편	(33.33%)
모형	2편	(66.66%)
합계	3편	(100.00%)

2.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방안

1)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고자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문항 7개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34개가 도출되었다. (〈표 10〉 참조)

〈표 10〉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구분	문항	구체적인 방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국가적 차원	법 제도적 지원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행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전문성	기존 종사자 재교육
		자격요건 체계화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전환교육의 범위 설정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법적차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전환교육 정의 구체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구분	문항	구체적인 방안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연계 효과	성인기 생활에 도움
		학령기 교육과 연계
		전환교육의 한 가지 선택 방안
		전환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평생교육 연계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순회교육
		이동편의 제공
		간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인력 확충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운영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가족의 참여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충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① 국가적 차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물적 지원은 과거에 비해 늘었으나, 문헌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 법 제도적 지원, 행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평생교육기관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은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교육, IEP, ITP와 연계하여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이 학생의 체계적인 교육 및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유하되, 각자의 전문 영역 및 역할에 맞춰 학생에게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은 높이면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고루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많은 수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 구성이나 문제행동 중재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평생교육이 단순케어, 돌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전문가 조사 결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체계화와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가 필요하며 기존 종사자의 재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평생교육 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가전문자격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 자격증을 만들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법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들은 국가를 통해 체계적인 재교육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격요건을 채우고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 중 일부를 전근하는 전공과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1인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며, 참여는 종사자들에게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언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수교육, 즉 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복지시설에 IEP, ITP, ILEP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에게 맞는 복지를 부모 및 당사자에게 알리고 연계할 수 있도록 매핑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① 전환교육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의 범위는 중등교육에 거의 한정되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에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3가지 범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아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환교육의 범위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유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초등교육은 초등부터 실시하여 종적 연계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중등교육은 중등교육에서 성인기 차원을 전환의 범위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② 법적 차원

전환교육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미비는 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전문가 조사 결과 크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전환교육의 정의 구체화,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전환교육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전환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해두며, 제22조에서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제 23조에서 전환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ITP 작성을 필수로 하며, 국가적인 전환교육의 범위별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환교육 범위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③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

전환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되는 4가지 전환 역량의 하나인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외의 전환 역량에도 평생교육의 자립생활훈련, 직업훈련 등의 관련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은 서로 전반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 이 둘을 연계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전문가 조사 결과, 성인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학령기 교육과 연계가 가능하며, 전환교육의 한 가지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전환계획에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ILEP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효과도 예상하였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이동편의 제공, 간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외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1:1 교육 및 활동이 가능한 인력 확충, 종사자 교육,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 운영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직업생활이 어렵기에 이들을 위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영역의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현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여러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②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돌봄의 부담을 감당하기에 부담을 점차 경감하기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조사의 결과, 가족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거나 가정 연계/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나왔다.

보호자와 가족들이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않기에, 평생교육기관에서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부모(보호자, 가족)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보호자(가족)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정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2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재구성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범주화된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① 국가적 차원

〈표 11〉 2차 전문가 조사 국가적 차원 결과

국가적 차원	응답수	응답비율
법 제도적 지원	5	(55.6%)
체계적인 연구	1	(11.1%)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3	(33.3%)
행정 지원	1	(11.1%)
전문인력 양성	2	(22.2%)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4	(44.4%)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4명(44.4%),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3명(33.3%), 전문인력 양성 2명(22.2%) 순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연구 필요와 행정 지원은 1명(11.1%)로 동일한 응답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 제도적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표 12〉 2차 전문가 조사 전문성 결과

전문성	응답수	응답비율
기존 종사자 재교육	1	(11.1%)
자격요건 체계화	3	(33.3%)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	2	(22.2%)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2	(22.2%)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	6	(66.7%)

전문성 영역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문항에 최대 2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6명(6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요건 체계화 3명(33.3%), 특수교육전문가의 배치 및 참여와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은 2명(22.2%)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기존 종사자 재교육은 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종사자의 자격과 전문가 양성 문제 이전에 현재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기에 전문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2)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 및 효과

① 전환교육의 범위

〈표 13〉 2차 전문가 조사 전환교육의 범위 결과

전환교육의 범위	응답수	응답비율
유아교육	3	(33.3%)
초등교육	1	(11.1%)
중등교육	5	(55.6%)

전환교육의 범위로는 중등교육이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아교육이 3명(33.3%), 초등교육이 1명(11.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을 성인기로의 전환에 한정지어 그와 가장 밀접한 시기인 중등교육으로 바라본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역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 상당히 분분하며,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② 법적 차원

〈표 14〉 2차 전문가 조사 법적 차원 결과

법적차원	응답수	응답비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2	(22.2%)
전환교육 정의 구체화	1	(1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6	(66.7%)

전환교육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법적 내용에 대한 문항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6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2명(22.2%), 전환교육 정의 구체화 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보완보다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교육과정, 전문인력 등의 법적 내용 제정이 우선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 및 방안

〈표 15〉 2차 전문가 조사 연계 효과 결과

연계 효과	응답수	응답비율
성인기 생활에 도움	3	(33.3%)
학령기 교육과 연계	0	(0%)
개별화평생교육계획 수립 기반 마련	1	(11.1%)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에 기여	5	(55.6%)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 효과에 대한 문항에는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에 기여가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기 생활에 도움 3명(33.3%), 개별화평생교육계획 수립 기반 마련 1명(11.1%)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교육과 연계는 응답이 없다.

〈표 16〉 2차 전문가 조사 연계 방안 결과

연계 방안	응답수	응답비율
자립 및 직업생활로 연계	4	(44.4%)
전환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3	(33.3%)
전환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2	(22.2%)

연계방안에 대한 문항에는 자립 및 직업생활로 연계 4명(44.4%)로 가장 많았으며, 전환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3명(33.3%), 전환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2명(22.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가 성공적인 자립과 직업생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립과 직업생활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

①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

〈표 17〉 2차 전문가 조사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결과

평생교육 연계	응답수	응답비율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2	(22.2%)
순회교육	0	(0%)
이동편의 제공	3	(33.3%)
간호서비스 제공	0	(0%)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5	(55.6%)
인력 확충	3	(33.3%)
종사자 교육	0	(0%)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3	(33.3%)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	3	(33.3%)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운영	2	(22.2%)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연계를 위한 방안에 대한 문항은 항목이 10개로 많기에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했다.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5명(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동편의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이 3명(33.3%)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구, 유관기관 연계 및 공동운영에 대한 응답이 2명(22.2%)로 나타났다. 순회교육, 간호서비스 제공, 종사자 교육은 응답이 없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정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가정에서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기본 자립재활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②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표 18〉 2차 전문가 조사 가정과 연계 결과

가정과의 연계	응답수	응답비율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가족의 참여	2	(22.2%)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충	0	(0%)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	1	(11.1%)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6	(66.7%)

평생교육을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6명(66.7%)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가족의 참여가 2명(22.2%),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이 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충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자를 프로그램 파트너로 생각해서 프로그램 계획, 편성, 운영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고려한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현황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전환교육과 평생교육,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환교육의 경우 주로 중등교육에서 성공적인 자립, 직업생활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환교육 계획 및 ITP작성, 실행의 부분에서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고, 특히 전환사정은 전환교육

에 적절한 교육과정 또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실행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평생교육의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교사 모두 평생교육이 교육유지, 지역사회 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적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의 전문성이 낮으며, 프로그램들 중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의 수준에 맞춰진 것이 아닌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진 것이었다. 전환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은 그 개념이 생소하여 연구가 거의 없으나, 기존 연구들은 학령기의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주로 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 제도적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뒤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수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인·물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적절한 운영에 대한 감찰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간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 복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간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호자에게 세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기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재교육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 제도적 지원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전환교육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방안은 먼저,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의 범위는 성인기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보아 성인기에 가장 가까운 중등교육으로 한정되어 연구하고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환교육은 조기에 실시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 사례가 있고 전문가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르기 때문에 유아교육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전환교육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연구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상술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완, 전환교육의 정의 구체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평생교육의 정의와 교육과정, 전문인력 등의 법적 내용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을 연계할 때 자립과 직업생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립 및 직업생활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의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립 및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자립 및 직업생활로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여가생활의 교육, 또는 일환으로서 평생교육을 전환교육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누구보다도 평생교육 참여가 절실하였으나, 현재 여러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웠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영역의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교육이 필요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설립되었지만 그 수가 적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정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주기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 회수율이 낮아 2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응답자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은 표본 집단을 더 다양화하고 늘림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있으나 이 역시 부족한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본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려 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조차도 적은 관계로 문헌연구법에 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은 문헌연구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질적연구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사람들을 심층면담하여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한 욕구 및 필요성을 연구할 것을 권한다.

참고문헌

- 강민채, 박현주. (2017). 고등부 특수교사의 전환교육계획과 실행과정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연구 (KADD), 21(1), 1-25.
- 강성하. (202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사의 역량 모델 연구: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동일, 이미지, 안제춘, 최서현, 임진형. (2020).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생활중심 전환교육의 효과 : 국내 집단설계연구의 메타분석. 지적장애연구, 22(1), 1-26.
- 김두영, 이경준. (2018).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3(1), 23-47.
- 김미아. (201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 야학 학습자의 참여 동기 및 교육 만족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 김미옥, 김지혜, 김고은. (2020).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의 돌봄경험 - 서울시 최중증 낮활동 시범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119-146.
- 김은영. (2017). Q방법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분석,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영준. (2015). 평생학습 측면에서 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학령기 증거기반 전환교육 실재의 활용방안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137~166.
- 김영준, 김화수. (2021). 발달장애인 맞춤형 학령기 전환교육 연계 성인기 평생교육 중점 모델 형성: 기초 연구. 인문사회 21, 12(6), 137-148.
- 김영준, 권량희. (2021a).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정착 구조: 거점 대학 지정을 통한 장애인평생교육 학교 토대화 추진. 인문사회 21, 12(5), 1077-1092.
- 김영준, 김화수, 권량희. (2021b). 한국 장애학생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모델 융합 재구성 : 학교지역사회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개발 타당성 관점. 문화기술의 융합, 7(4), 95-104.
- 김원호. (2020).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와 지원방안 탐색: 특수교사와 교과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2(3), 141-170.
- 김주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1),

65-92.

- 김주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6(2), 1-28.
- 김현숙.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욕구분석 연구 - 시흥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25-53.
- 김현숙. (20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이 주 양육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장애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권미영. (2022). 발달장애인의 STEAM기반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의 인식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03-124.
- 나애노. (20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민기연. (2020). 장애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대학기반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157-167.
- 맹성은. (2021).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직업훈련과 장애인평생교육과의 연계성에 관한 훈련교사 인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광옥, 이현주, 김경선, 박희찬. (2020). 델파이 분석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과제 탐색. 장애와 고용, 30(2), 93-116.
- 박사혁.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13-38.
- 박애선. (2018). 어머니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자녀의 성인기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93-113.
- 박준영, 천정미. (2006). John Dewey 철학에서 평생교육이념의 고찰. 교육사상연구, 19, 1-14.
- 박지현, 이미지, 황지은. (2021). 교사인식에 바탕한 국내 발달장애학생 전환교육 연구 탐색: 중요도, 실행도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3(1), 149-174.
- 박철. (2016). 중등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담당자 인식 : 부산지역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유경, 박재국. (20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들의 인식. 특수교육논집, 26(2), 51-74.

- 서효정, 박윤정. (2018).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과 고등교육 프로그램(TPSID) 분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3(3), 287-319.
- 서효정, 박윤정, 신소은. (2021). 중등 발달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 역량 체계 개발 및 활용. 특수교육학연구, 56(2), 45-65.
- 송건, 정진자. (2021).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단 일대상연구 경향 분석. 장애와 고용, 31(1), 137-173.
- 심석순. (202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49(), 83-105.
- 오수학, 김영옥, 최지아, 권영문. (2022). 체육학 검사도구 문항의 삭제와 보완을 위한 내용타당도의 정량적 검증: CVR과 CVI를 활용한 통계적 내용타당도 평가.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ES), 10(3), 25-34.
- 오은경, 임원균. (2021).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의 긍정적 인지정서상태 영향요인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1), 135-156.
- 이미현. (2017).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욕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재호. (202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학교 전공과 교사들의 인식. 인문사회 21, 13(2), 2489-2504.
- 이창호. (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한국복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주, 정평강. (2021a).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7(2), 233-258.
- 이현주, 김경화, 정지희. (2021b).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관한 주요 당사자들의 다각적인 인식 및 요구 분석: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3(2), 43-72.
- 임우열. (2016). 거점학교를 이용한 직업훈련과 사회성 전환교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 학생의 직업준비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예직, 김주옥. (2022).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 유형화와 맞춤형 서비스 설계 방안 연구 :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7(57), 89-117.
- 조인수. (2000). 전환교육 계획수립과 과정. 특수교육연구, 23(1), 171-192.
- 조창빈, 김두영. (2020).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평생학습사회, 16(2),

233-259.

- 주영하, 박미진, 김기룡. (202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잠재계층 유형과 만족도 관계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식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23(4), 119-139.
- 진형식. (2021).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종사자의 근로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재경, 박영근, 이재호.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G 광역시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2), 201-232.
- 추연지. (2021).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심리지원 요구도 조사 : 부모의 요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최민식. (2020). 학부모 자조모임 참여실행연구를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성인전환기 준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최선경. (2019).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안 . 문화기술의 융합, 5(4), 105-114
- 한경근, 김원호, 주교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초점집단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5(1), 135-157.
- 황순영, 양혜림, 이후희. (2018). 특수학교 중등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19(4), 259-291.
- 황지은, 이미지, 박지현. (2021). 발달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교육에 대한 메타적 중요도-실행도 (IPA) 분석 : 2000년 이후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23(3), 85-111.
- 홍성두, 김원호.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쟁점과 제안.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61-78.
- 홍주희, 이숙향. (2016). 국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요소 및 성과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8(1), 145-169. 강수정 (2017).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융복합 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홍주희, 이숙향. (2019). 학생과 가족을 위한 전환지원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9(2), 135-163.

홍주희, 이숙향. (2020). 전환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가족의 전환준비 및 가족역량강화 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41-72.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	-----------------------	----------------------

Abstract

The Status and Pla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nnection with Transitional Education:

A Study on the Linkag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the Most Severely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in Ji Su*·Kim Gyu R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nect the most severely disabled to lifelong education and to help them transition and maintain a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 self-reliance through the linkage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conversion educat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 after examining literature research,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link between lifelong education of the most severely disabled and the direction, specific measures, and expected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and conversion education. In the first survey, each method was specifically investigated with a subjective question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multiple-choice questions on the same topic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as a way

*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develop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way to link lifelong education for the most severely disabled, support for home and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smoothl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at even those with the most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to link lifelong education, and that experts need to agree on the scope of conversion education.

Keywords : transition education, disability's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al disability, most severely developmental disabilities